舊譯仁王經 口訣의 語彙

朴盛鍾*

1. 머리말

이 글은 舊譯仁王經 구결의 어휘에 관해 그 단편을 살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73년에 발견된 舊譯仁王經 上 落張 5張에 기입된 구결은 훈민정음 이전 시기의 한문 독법을 비롯하여 국어의 형태 및 통사, 음운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려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어사 기술의 시기와 폭을 넓혀 주었다. 어휘 면에서 구역인왕경 구결 자료의 면모에 대해 변죽을 울리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구역인왕경 구결에 대하여는 沈在箕(1975)에서 영인 자료와 함께 처음 소개되었다. 뒤이어 南豊鉉·沈在箕(1976)는 석독구결 자료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밝히면서 한문의 독법과 어순, 구결자, 음독과 훈독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구결자의 原字와 문자 체계에 관해서는 南豊鉉(1986) 및 金永萬(1986)에서 좀더 자세히 검토하였다. 南豊鉉(1985)에서는 구결의 기입 연대를 12세기 중엽으로 추정한 바 있으나, 이 연대는 다소 늦잡을 필요가 있어 南豊鉉(1996)에서는 13세기 중엽으로 수정하였다.[1]

---

* 관동대학교

1) 南權熙(1997:152)에서는 13세기 후기로 추정하였다.

구역인왕경의 구결에 讀音을 달아 구결문을 읽고 해독한 전반적인 논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李東林(1982)은 구역인왕경에 쓰인 구결자 중 일부와 구결토의 형태 등에 관해 언급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구결문 전체에 대해 독음을 달고 현대어 해독을 시도하였다. 둘째, 김두찬(1997)은 구역인왕경에 쓰인 각 漢字들의 음과 훈을 정리하고, 한자를 음독할지 새겨 읽을지에 관한 원칙을 세운 연후에 이를 토대로 구결문의 직역과 의역, 그리고 일본어 번역문을 참고로 제시하였다. 구결이 달린 2자 이상의 한자는 음독하고, 單字는 음독의 경우와 훈독의 경우로 나뉜다고 하였다. 셋째, 남성우·정재영(1998)은 구역인왕경에 쓰인 구결자 및 구결토 중 난해하거나 논의해야 할 대상들에 관해 언급하고 구결문 전체에 대해 독음을 달았다. 넷째, 구결학회 월례 강독회에서의 논의가 참고된다. 구결학회에서는 1997년 4월부터 12월까지 7차에 걸쳐 구역인왕경 구결을 강독한 바가 있다. 이것은 비록 간행물로 나온 것은 아니나, 독음의 추정을 비롯하여 현대어 번역에 이르기까지 여러 회원들의 의견 제시와 토의가 이루어져 구역인왕경 구결의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본고가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2. 한자의 독법

석독구결에서는 두 자 이상의 한문 구성소 - 달리 말하여 2음절 이상의 한자어는 음독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은 토가 달려 있거나 없거나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그러나 세밀히 들여다 보면, 이 원칙 역시 절대적이 아닐 수 있음을 느끼게 한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첩어의 경우이다. '各各'의 경우엔 각 한자마다 현토되어 있다. 各ㅋ各ㅋㅈㅈ<2.3>[2] 各ㅋ各ㅋㅈ<2.4, 2.6, 3.14>이 그 예이며, 단독으로 쓰인 경우에도 各ㅈ<2.19>의 예와 같이 현토되어 석독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一一國土, 一一佛<2.6>' 중 '一一'의 경우에는 음독을 했는지 석독을 했

2) 2.3은 2張 3行을 가리킨다.

는지 판정하기 어렵다. 김두찬(1997:169)은 2음절 한자어라 할지라도 모두 음독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座前'을 예시하였다. 座前ᄋᆞ<2.17>의 경우엔 한자를 음독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座前ㅅ<2.3>에서는 음독을 했을지, 아니면 한자를 각각 끊어 읽어 '座 알핏'으로 읽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 한 가지 독법 '자리 알핏'도 설득력을 지니고 있음은 물론이다(이동림 1982:25).

한 字로 된 한문 구성소에 구결이 달린 경우 - 즉, 현토된 1음절 한자의 경우엔 음독과 석독의 판정 여부가 다소 어렵다. 예를 들어 '量ㅅᄉᆞ'을 음독하여 '量홈'으로 읽어야 할지, 석독하여 '헤아롬'으로 읽어야 할지 다소 애매하다. 현토된 1음절 한자의 음독과 석독의 판정 여부는 15세기 및 중세 국어 어형에 일차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글 문헌에서의 文證 여부가 관건이 된다. 김두찬(1997:168)은 1음절 한자에 'ᄒᆞ-'(ᄒᆞ-)가 접미된 것들 중 석독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예들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化ᄒᆞ-'는 'ᄃᆞ외ᄒᆞ-'로 읽히지 않으므로 음독하여 '화ᄒᆞ-'로 읽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논자에 따라서는 이견을 보인다. '作ᄒᆞ-'는 석독 불가능한 것으로 제시되었으나, 이동림(1982:29)은 '지ᄒᆞ-'로 읽은 것이 그 한 예다. 사정이 이러하다 해서 한자의 독음을 논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맡길 수 없음은 물론이다. 현토된 1음절 한자의 독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남풍현·심재기 1976:45). 'ᄒᆞ-'(ᄒᆞ-)나 'ᄒᆞ-'(호-)가 접미되어 동사로 쓰인 한자들은 음독된다. 'ᄒᆞ-'(하-)가 현토되어 부사로 쓰인 한자들 역시 음독된다고 본다. 구역인왕경에서 '快ᄒᆞ, 略ᄒᆞ<11.13>'가 그 예다. 이와 달리 석독할 때의 어간 말음 또는 말음절이 현토되었거나, 'ᄒᆞ-' 없이 어미만 현토된 경우, 그리고 다음에서 설명할 全訓讀 표기 - 즉, 해당 한자의 새김이 현토된 경우의 한자는 음독된다. 이 원칙에 충실히 따른다면, 위의 '量ㅅᄉᆞ'은 '量홈'으로, '作ᄒᆞ-'는 '作ᄒᆞ-'로 읽어야 마땅하다. 이 원칙에 따라 '有' 자의 독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因緣ᄆᆞ 本ᄆᆞᄒᆞ 自ᄅᆞᄆᆞ 有ᄒᆞᄀᆞ ᄒᆞᄀᆞ 自 無ㅌᆞᄏᆞ 他作 無ㅌᆞᄏᆞᄒᆞᄀᆞ <14.24-5>

諸ᄀᆞ 法ᄀᆞ 因緣ᄆᆞ 有ᄒᆞᄀᆞᄒᆞᄒᆞᄅᆞᄀᆞ

(2) 有ㅌナ<2.1> 有ㅌㅣンロろ个ゝ<14.18>
(3) 有ㅅ 無ㅅㅌ 義ㅐ [是]ㅐ [如]ㅣンナㅣ<15.2>

(1)은 'ᄒᆞ-'가 접미되어 동사로 쓰인 것으로서 이 경우의 '有'는 음독된다. 이와 달리 (2)의 '有ㅌ-'은 존재동사 '잇-'으로 새겨 읽는다. 'ㅌ'은 동사 어간의 말음을 표기한 구결자이기 때문이다. (3)은 동사가 아니라 '無'의 대립 개념으로서 명사로 쓰인 것이므로 '有' 자를 음독해야 할 것이다.

석독구결에서는 석독할 한자의 새김을 구결자로 표기하여 현토한 것이 있다. 한자는 읽지 않는 대신 한자에 달린 구결자를 읽으면 그것이 해당 한자의 새김이 되는 것이다. 이를 가리켜 일명 全訓讀 表記라 한다. 구역인왕경에서도 전훈독 표기가 눈에 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4) ㄱ. 是ㅐ 月光王ㄱ<11.20> 是ㅐ 故ᄆ<14.5>
ㄴ. 香ㄱ 車輪 如ㅣンᄒ 花ㄱ 須彌山王 如ㅣンナㄱᄉ <2.15>
ㄷ. 是ㅐ 如ㅣンヒハニ<3.11-2>

(4ㄱ)의 '是ㅐ'에서 '是'는 읽지 않는 대신 그에 달린 구결자 'ㅐ'의 독음 '이'가 '是'의 새김을 나타낸다. (4ㄴ) 역시 '如ㅣン-'에서 'ㅣ'의 독음 '다'가 '如'의 새김을 가리킨다. 따라서 (4ㄷ)은 '이 다ᄒᆞᄂᆞ기시며'[3]로 읽힌다. 석독구결에서는 때로 한자를 새겨 읽으라는 표시의 일명 指定文字가 사용되기도 하는 듯하다. '如ᄎンエㄱㅅᄆ'<金光明經 2.1>, '是 如ᄎンㄱ 所受ㅌ 正法し'<瑜伽師地論 3.16-7>의 예에서 보듯 'ᄎ'는 선행 한자를 새겨 읽으라는 표시로 사용된 지정문자로 볼 수 있다. 이 지정문자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다. 'ᄎ'를 '다' 또는 '히'나 '기' 정도로 읽히는 구결자로 보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하튼 구역인왕경 구결에서는 이러한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

---

3) 'ᄒᆞᄂᆞ기시며'는 논자에 따라 'ᄒᆞᄂᆞ시며'로 읽기도 한다.

석독구결에서는 한문에 쓰인 자 중에 읽지 않는 것이 있다. 이 자를 일명 不讀字라 한다. 한문의 虛辭類에 속하는 자들이 이에 해당되는데, 구역인왕경에서는 (5)에서와 같이 '於, 者, 之'의 석 자가 不讀字로 쓰였다. 不讀字를 [ ]로 표시하여 용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5) 復ン丁 [於]頂上ミ十ンミ<2.12>
無ヒ丨ンニラヲ尸の丁[者]<14.19>
生し 含ン丁ヒヒ[之] 生丁<11.12>

3. 구역인왕경 구결문의 어휘 체계

구역인왕경 구결 자료는 한문으로 된 불경을 국어로 읽은 것이기 때문에 한문 불경 원문에 쓰인 단어들이 국어 어휘 체계에 그대로 스며들었다고 보기는 자못 의심스럽다. 각종의 인명 및 國名 등의 고유명사를 비롯하여 빈번히 등장하는 불교 용어들의 경우는 특히 그러하다. 향가와 이두 자료들에 쓰인 단어들은 국어 어휘로서 보증을 받는 것이나, 자료가 워낙 빈약하여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物名類나 그와 유사한 성격의 자료가 현존하지 않는 까닭에 당대의 어휘 체계의 실상을 파악하기가 지극히 곤란하다. 다만, 구역인왕경 자료가 쇄출되었고 그에 기입된 토가 국어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입장에서 불경 원문과 구결토를 모두 묶어 구역인왕경의 어휘 체계라는 관점에서 약술하고자 한다.

구역인왕경 구결문의 어휘는 한자어와 고유어로 양분할 수 있다. 한자어 實辭에 'ᄒᆞ-'가 접미되어 동사로 쓰이거나 다른 접미사가 통합되어 파생된 단어들은 한자어에 귀속시킨다. 예를 들어 '修行ン-, 告ン-, 快ᄭᅳ'와 같은 단어들은 한자어로 다루는 입장을 취한다.

3.1. 한자어

한자어는 중국 文語系 한자어와 佛敎語系 한자어로 그 계보에 따라

나눌 수 있다. 白話系 한자어가 구역인왕경에 쓰이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한자어를 몇 가지 종류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한다.

(6) 須彌山, 般若波羅密, 比丘, 菩薩, 佛

(6)은 불교어계 한자어로서 梵語를 表音한 것들이다. '須彌山'의 '須彌'는 범어의 Sumeru, '般若波羅密'은 Prajñāpāramitā, 比丘는 Bhikṣu[4]를 각각 표음하였다. 菩薩과 佛은 준말이다. 菩薩은 범어의 Bodhisattva를 표음한 菩提薩埵에서, 佛은 Buddha를 표음한 佛陀에서 줄여 사용하는 단어이다. 이들 불교에서 유래한 音譯 한자어들은 특히 고유명사 표기에 빈번히 나타난다.

(7) 果, 三寶, 三界, 善男子, 說法, 成佛, 成就, 世界, 世尊, 修行, 十方, 如來, 因緣, 一切, 寂滅, 淨土, 衆生, 出世, 虛空

(7)도 또한 불교어계 한자어이나 이들은 범어를 意譯한 것들의 예이다. 이 중 '如來, 一切, 衆生' 등은 향가에서도 사용되었다. 구역인왕경은 불경이므로 불교어계 한자어가 큰 비중을 차지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위 (7)의 예에서 보듯 '成就, 世界, 因緣, 一切, 出世, 虛空'과 같은 단어들은 불교어라는 의식 없이 일반화하여 사용되는 것들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8) 國土, 大王, 大會, 東方, 善惡, 音聲, 音樂, 頂上, 震動, 集會, 出現

(8)은 중국 문어계 한자어들의 예이다.

구역인왕경 구결문에서 'ᄒᆞ-'(ᄒᆞ-)나 'ᄒᆞᄋᆞ-'(호-)가 접미되어 동사로 쓰인, 한 字로 된 漢字들의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의 (9) 및 (10)과 같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동사로 쓰인 이 1음절 한자들은 음독된다.

---

4) 파이어에서는 Bhikkhu임.

(9) 蓋, 居, 告, 空, 觀, 起, 登, 量, 來, 無, 問, 放, 變, 散, 生, 成, 續, 餘, 謂, 有, 入, 作, 除, 照, 存, 坐, 住, 集, 出, 置, 歎, 含, 解, 行, 現, 化

(10) 答, 名, 思, 念, 禮, 下

(9)는 각 한자의 대표적인 訓[5]이 대체로 동작성 의미를 가지며 이에 따라 '蓋 덮을 개'와 같이 訓의 말음이 관형형 어미 '-ㄹ'로 끝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와 달리 (10)의 각 한자는 대표적인 訓이 명사성 의미를 갖는다. 양자를 대비해 보면 'ᄒᆞ-, 호-'가 접미된 1음절 한자 동사들은 의미 면에서 동작성을 지닌 것들이 명사성을 갖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명사성 訓을 가진 (10)의 한자들은 '×를 ᄒᆞ다'와 같은 구성이 가능하여 접미된 'ᄒᆞ-'와 분리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다만, '下ㅅ-'만은 예외이다. '下ㅅㅁㅌㅣ ᄀᆞ'<2.15>에 견주어 '上ㅅ-'가 예측되나, 구역인왕경에서는 '其 花ㄱ 上ㅅㄱ 非想非非想天ㅣ+ 至ᄒᆞ'<2.13>에서와 같이 '上ㅅㄱ'이 부사어로 작용하고 있어 통사적 기능에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이 때의 '上'자는 석독했을 개연성이 높다.

현토된 1음절 한자 중에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것이 있다. 이 한자들 역시 음독되는데, (11)이 그 예다. (11ㄴ)의 '者'는 앞서 언급했듯이 不讀字로 쓰인 것이 많으나 이 경우에는 음독되어 명사로 사용된다.

(11) ㄱ. 一一國土ㅅ 中ㅣㅅ 一一佛ㅣ 及ㅎ 大衆ㅣㅅ ᄀᆞᄉᆞᆷᄋᆞᆫ 各ᄀᆞ各ᄀᆞᆨ 般若波羅蜜ㅣ 說ㅌㅣㅎㄴㅣ<2.6-7>

ㄴ. 能矣 答ㅅㄴᄀᆞᄉᆞᆷᄋᆞᆫ 者 無ㅅㅌㅣㅎㄴㅣ<3.3>

---

5) 이 글에서는 訓과 釋을 다음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다. 한자의 여러 釋 가운데 대표적인 釋을 가리켜 訓이라 한다. '上'의 여러 釋들 즉, '위, 높을, 꼭대기, 임금, 오를, …' 등등의 여러 字釋 가운데 대표적인 '위'를 가리켜 字訓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釋은 새김이라고 한다.

구역인왕경에서 부사어로 쓰인 한자어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12) ㄱ. 僉然ᄒᆞ<2.9, 2.19>, 自然ᄒᆞ<2.17>, 快ᄒᆞ<11.13>, 略ᄒᆞ<11.13>
ㄴ. 次第ᄆᆞ<3.1>, 本ᄆᆞᄇᆞ<14.24, 14.25, 15.3>

(12ㄱ)은 '-히', (12ㄴ)은 '-로'가 접미되어 파생된 한자어 부사들이다. 2음절 한자어들은 음독되었다고 본다. '次第'는 15세기 국어에서 여러 번 쓰였을 뿐만 아니라, '次第ᄆᆞ'는 '次第로'<금강경언해 4ㅎ>에 정확히 일치한다. '次第'는 음운변화를 거쳐 'ᄎᆞ례'로 굳혀져 한자어로서의 유연성이 약화되어 가는 듯하다(박영섭 1995: 59). '僉然ᄒᆞ[6], 自然ᄒᆞ'의 각 한자들도 음독되었다고 본다.현토된 1음절 한자의 경우는 음독과 석독 여부가 불분명하다. 본고에서는 잠정적으로 음독한 것으로 다루지만, 새겨 읽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本ᄆᆞᄇᆞ'의 독법과 관련해서다. '本ᄆᆞᄇᆞ'의 '-ᄇᆞ'은 강세 첨사로 보고 이를 떼어 낸 나머지 '本ᄆᆞ'는 15세기 국어에 '본ᄃᆡ로'에 일치하는 어형이다. 그러나, '본ᄃᆡ로'가 기원적으로 고유어는 아닌 듯하다. 李基文(1972:82)은 處容歌 중의 '本矣'를 중세국어의 '본ᄃᆡ'로 해독한 것에 대하여 '미틔' 정도로 새겨 읽을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訓主音從의 원리와 讀字 우선의 원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석독이 좀더 진실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볼 때 '本ᄆᆞ'는 이른 시기에 '*미트로'로 읽혔을 소지가 있다. 구역인왕경 구결을 기입할 당대의 어형이 '*미트로'와 '본ᄃᆡ로' 중 어느 쪽인지가 애매하나, 15세기 국어의 용례에 미루어 후자를 택하기로 한다.

---

6) 김두찬(1997:183)은 '僉然ᄒᆞ'를 '여러히'로 읽었으나, 논거로 제시한 15세기 국어의 용례는 부사형이 아니라 주격으로 사용된 것이다.

3.2. 고유어

구역인왕경 구결문에 나타나는 고유어들을 품사별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품사의 식별이 현대어처럼 뚜렷한 것은 물론 아니다. 동사의 격 지배 양상이 중세국어와 다를 뿐만 아니라 부사와의 경계가 불분명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동사와 명사 어간이 일치하는 이른 시기로부터의 용법이 감지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ᄀᆞᆮ'으로 읽히는 '如' 자를 들 수 있고, 후자는 '諸'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구역인왕경에서 '如' 자는 '如ㅣㅅ-'와 같이 全訓讀 표기로 나타나 '다'로 읽히는 예가 많다. 그러나 이와 달리 '눈 ᄀᆞᆮ 디니이다<용비어천가 50>, 하ᄂᆞᆯ ᄀᆞᆮ 셤기숩다니<월인천강지곡 140>'에서의 'ᄀᆞᆮ'에 일치하는 용례도 나타난다. '今ㄴ 如這<2.5>, 法ㄴ 如這<3.19>, 幻諦ㄴ 如這<14.13>'이 그 예이다. 이 때 'ᄀᆞᆮ'이 모두 대격을 지배한다는 사실이 중세국어와 다를 뿐만 아니라, '×를 ᄀᆞᆮ'이 부사구를 형성하고 있음은 분명하나 이 경우의 'ᄀᆞᆮ'을 부사로 설정할지 동사로 다루어야 할지가 다소 애매하다.

후자의 예인 '諸'의 경우 역시 다루기가 쉽지 않다.

(13) ㄱ. 諸ㄱ 法ㄱ <15.2>, 諸ㄱ 法相ᄋᆞ十<15.22>, 六欲ㄷ 諸ㄱ 天ㄱ<2.16>, 六欲ㄷ 諸ㄱ 天ᄉᆞᄉᆞᆫᄉᆞㄱ<3.5>
ㄴ. 諸ㄱ 大衆ㄱ <2.19>
ㄷ. 諸ㄱ 菩薩 爲ᄒᆞᄉᆞᆷ<3.18>

(13)의 '諸ㄱ'은 15세기 국어의 '모ᄃᆞᆫ'과 정확히 일치하는 어형이다. 新增類合에서도 '諸'의 훈을 '모ᄃᆞᆫ'으로 적었다. '모ᄃᆞᆫ'은 일단 관형사로 규정해 볼 수 있는데, 그 생성 과정 및 어원을 고려해 보면 동사적 성격의 어간에 어미 '-ㄴ'이 접미된 것으로 추정된다. 명사에 '-(ᄋᆞ)ㄴ'이 통합되어 관형사로 굳혀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어간이 기원적으로 동사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으리라는 추정은 (14)에서의 존칭 선어말어미 '-ᄉᆞᆸ-'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14) ㄱ. 十住菩薩ㅅ 諸ᄒᆞᆫ 佛ㅅ ᄭᅴ 五眼ᄀᆞ<14.13>, 十方ᄭᅴ 諸ᄒᆞᆫ 如來ㅅ 一切菩薩ㅅ ᄂᆞᄆᆞᆺ<15.21>
ㄴ. 諸ᄒᆞᆫ 佛ㅣᄒᆞᄆᆞ 如來ㅅ<15.20>

'諸'의 새김으로서 중세국어의 '여렇'을 상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ᄒᆞᆫ-'와의 사이에 계사가 개입되어야 하는데, 표기자가 없으므로 계사의 표기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諸ㄱ'과 '諸ᄒᆞᆫ' 그 어디에도 계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14ㄴ)에서 바로 뒤에 나오는 '佛ㅣᄒᆞᄆᆞ'에 표기된 계사가 유독 '諸ᄒᆞᆫ'에서만 생략 표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여렇'으로 새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런데 (15)의 용례로 감안할 때 '諸'의 새김 어간을 동사적 성격으로만 국한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15) ㄱ. 佛ㄱ 諸ᄒᆞ 道果ㄴ 得ᄂᆞᆫㄱ 實天衆ᄒᆞᆫᄐᆞ 告ᄒᆞᄆᆞ<11.20>
ㄴ. 諸ᄒᆞ 有ᄒᆞᄂᆡㄱ 本有ᄂᆞᆫᄇᆞᄒᆞ 法ㄱ<15.1>

'諸'의 새김 어간이 동사라면 구결토 'ᄒᆞ'를 설명할 수 없다. 이 난점을 피하기 위해 '諸ᄒᆞ'를 부사로 상정할 수도 있으나, (15ㄱ)의 한문 원문 '佛告諸得道果實天衆'에 견주어 볼 때 '諸'는 명사구인 '實天衆'을 수식하는 기능을 가짐에 틀림없다. 또한 (15ㄴ)의 '諸ᄒᆞ'는 주어적 속격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소지가 다소 있다. (15ㄴ)은 대략 '모든, 있는 바의, 本有한 것의 法은'으로 풀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바의, 本有한 것의 法은'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여하튼 (15)의 용례 '諸ᄒᆞ'는 '諸'의 새김 어간이 결코 동사일 수 없음을 일러 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諸'의 새김 어간은 기원적으로 명사와 동사의 성격을 겸한 '*몯'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諸ᄒᆞ'는 명사적 성격의 어간에 속격 조사가 통합된 '*모ᄃᆡ' 정도로 읽혔다고 본다. 15세기 국어의 자동사 '몯-', 부사 '모다'와 '모도', 관형사 '모ᄃᆞᆫ'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동사 어간으로서의 기능

은 후대에까지 미치는 듯하다. 다만, 명사적 성격의 語辭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와 같이 全訓讀 표기나 말음첨기가 아니라 한자의 새김과는 직접 상관없이 단지 한자에 연결되어 조사와 어미만이 구결자로 달려 있을 경우, 구결토에 의거하여 선행 한자의 새김을 추정하여 어형을 재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릴없이 후대의 국어 어형에 의존하여 논의한다는 점이 문제시된다. 15세기 어형과 다른 양상을 띠었다고 가정한다면, 도무지 그 정곡을 파헤칠 객관적이고 충분한 도구를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3.2.1. 명사류 고유어

격조사 및 보조사가 현토된 1음절 한자들은 국어로 새겨 읽는다. 그러나 이 경우 해당 한자를 어떻게 새겨 읽었는지에 관해서는 시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것이 난점이다. 15세기 국어에 의거하여 독음을 추정하기는 하나, 객관적이고 뚜렷한 논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각 단어들의 15세기 이전의 어형을 고찰함에도 이렇다 할 만한 단서를 제공하지 않는다.

(16) 光ㄱ<2.13>/光ᄭ<11.9>, 口ᄋᆞ+<11.10>, 年ㄴ<2.10>, 事ㄴ<2.23>, 上+<2.3>, 聲ᄭ<3.5>, 世+<14.5>, 所ㄷ<11.24>, 手ㅢ<15.7>, 心ᄋᆞ+<15.4>, 牛ㅋ<15.3>, 月ㄷ<2.11>, 意ᄋᆞ+<3.17>, 天ㄱ<2.16>

위 1음절 한자들의 새김을 15세기 국어에 기대어 밝혀 보면 (17)과 같다. 편의상 현토된 조사의 독음은 생략한다.

(17) 光(빛), 口(입), 年(히), 事(일), 上(웋), 聲(소리), 世(누리), 所(바), 手(손), 心(ᄆᆞᅀᆞᆷ), 牛(쇼), 月(ᄃᆞᆯ), 意(ᄠᅳᆮ), 天(하ᄂᆞᆳ)

이들과 달리 명사 어간의 말음이나 말음절이 구결자로 표기된 예들은 신빙성이 높다. 위 예들 중 '所'는 중세국어와 마찬가지로 '바'로 읽혔음이 분명하다. 말음이 표기된 '所ㅣ'<11.23>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今'도 석독한 것이긴 하나, 이 경우에는 짚어 볼 문제가 있다.

(18) ㄱ. 我ㅣ尸 今ㅅ 月光ㄱ 三寶ㅣ 禮ㅅ白ㅁㅏㅎㄱㅣㅅ<11.8>
ㄴ. 今ㄴ 如這<2.5>
ㄷ. 汝ㄱ 今ㅅㄱ 聽ㅅ尸 無ㄴㅏ 我ㄱ 今ㅅㄱ 說ㅅ尸 無ㄴ白ㅎㅣ<14.21>

'今'의 훈은 訓蒙字會에서 '엳'<下1ㅎ>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18ㄱ)의 '今ㅅ'에서 말음이 'ㄱ' 또는 'ㄱ' 음의 표기에 쓰이는 구결자 'ㅅ'로 표기된 점이 문제시된다. 이로 말미암아 논자에 따라 '今'의 새김이 제각각인데, '이제'로 읽거나 '엳'으로 읽거나, 혹은 독법을 보류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 필자는 '今ㅅ'에서의 'ㅅ' 표기는 말음 'ㄱ' 또는 'ㄱ' 음의 전사와 관련이 없고, 그 대신 '엳'의 종성 'ㄷ'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종성의 'ㄷ'을 표기할 적절한 한자가 없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如'의 훈 'ᄀᆞᆮ'의 표기자 '這'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한다.이에 따라 (18ㄷ)의 '今ㅅㄱ'은 '이제, 지금' 정도의 의미를 가진 부사어로서, '今'의 訓을 그대로 살려 '엳ᄒᆞᆫ'으로 읽을 수 있다고 본다. '今ㅅㄱ'은 구역인왕경에서 세 곳에 더 사용되었다(3.18, 11.13, 11.22).

명사로 쓰인 1음절 한자 중에는 새김이 다른 경우도 있다. '時'의 경우 단독으로 '時十'<2.14>로 쓰인 것도 있고, '爾ㅅㄴㄱ 時十<2.10>, 是ㅅㄴㄱ 時十<2.18>'와 같이 '그러한, 이러한' 정도의 의미를 갖는 수식어 뒤에 쓰인 것도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時ㅣㅈㅓㅎㄱㅗㄴ'로 나타난다. 이 때 '時十'의 경우는 '時'를 '쁘'로, '時ㅣ-'일 경우에는 '쁴'로 나누어 석독할 필요성이 있다. '前' 자의 새김 역시 두 가지로 읽힌다고 본다.

(19) ㄱ. 今ㅅㄱ 於 我ㅋ 前ㅈ十ㅅㅈ 大師子吼しㅅナトㅣ<11.22>
幻諦ヒ 法ㄱ 佛ㄹ 出世ㅅ白ㅎㄹ 無ヒニㄱヒヒ 前ㅈ十
<14.2-3>
ㄴ. 大覺世尊ㄱ 前ㅊ 已(ㅣ) 我ㅌ 等ㅅㄱ 大衆ㅋ 爲ㅣ<2.20-1>
前ㅊ 餘ㅅㄱ 習ㄹㄱ 無明緣ㅣ<11.1>

(19)에서 ㄱ과 ㄴ의 '前'을 똑같이 읽을 것인지가 문제다. 일반적으로 석독구결에서는 처격 표기에 '十'가 후행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19ㄴ)의 '前ㅊ'를 '아릐'로 읽어 부사로 다루고, (19ㄱ)의 '前'을 중세국어의 명사 '앒'으로 새겨 읽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7]

구역인왕경 구결문에 쓰인 의존명사 중 분명한 것은 중세국어의 'ᄃᆞ'에 이어지는 형태이다. 'のㄱ(ᄃᆞᆫ), のㄴ(ᄃᆞᆯ), のㅛ(ᄃᆞ로)'로 나타나는데, 이 의존명사 앞에 관형형 어미 '-ㄴ'과 '-ㄹ'이 각각 '-ㄱ'과 '-ㅌ'로 표기되어 선행하고 있다. 15장에 두 번 쓰인 '譬のㄱ'<15.3, 15.7>은 '가줄비ᄃᆞᆫ'으로 읽혔으리라 추정된다. 이것은 이두의 '白等(숣ᄃᆞᆫ)'과 동일한 성격의 통사구조를 보인다. 동사 어간에 의존명사가 직접 통합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3회 나타나는 '何以故のㄱ'<15.12, 15.14, 15.19>의 경우엔 한문 구성소와 구결토 사이에 구결 표기가 생략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의존명사 '이'의 존재도 감지된다. 'ノヲㄹㅅ白ㅎㄱㅁ'<2.5> 중의 'ノヲㄹ'는 대체로 'ᄒᆞ + 오 + ㄹ # 이(의존명사) + ㅣ(주격조사)'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의존명사 'ᄂᆞ'의 존재에 관해서는 의견이 대립된다. '舍ㅅㄱヒヒ'<11.12>에 대해서 'ᄒᆞ + ㄴ(동명사 어미) + ᄋᆞ(조음소) + ㅅ(속격)'으로 보는 견해와, 'ᄒᆞ + ㄴ(관형형 어미) # ᄂᆞ(의존명사) + ㅅ(속격)'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의존명사인지 미심쩍은 것으로는 'ㅈ'와 'ㅈ'가 있다. 전자는 구역인왕경에 세 번 쓰였다. '無色界ヒㅈㄱ'<2.14>이 그 중 한 예이다. 이것에 관해서는 경상도 방언 중 '이놈어 손아'라 할 때의 '손'과 연관하여 原字를 '孫'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구결강독회에서 있었다. 'ㅈ'는 瑜伽師地論에

7) 서울대 박진호 선생이 주관한 강독 자료 참조.

서도 한 번 쓰인다('二ㅎ 第七ㅎし'<26.13-4>). 구역인왕경의 '十四王ㅋ ㅈし'<11.13> 중 'ㅈ'가 속격 조사 뒤에 적힌 것으로 미루어 명사일 개연성이 있으나 그 존재가 분명하지 않다.

대명사 중에서 확실하게 입증되는 것은 전훈독 표기의 근칭 지시대명사 '이'이다. '此ㅣ'<2.7, 3.8 등>와 '是ㅣ'<3.11, 11.13, 14.12>가 그 예이다. '其'와 '彼' 및 대명사 '之'가 한문에 쓰였으나, 그 독음에 대한 단서가 전혀 없다. 인칭대명사 중 2인칭의 '汝'에 속격 조사가 달린 '汝ㅋ'<11.23>가 보이나 '너의'로 읽혔다는 적극적인 증거는 없다. 이와 달리 1인칭 대명사에 달린 토는 독음 추정에 단서를 제공한다. '我ㅎ等ㅅㄱ 大衆'<2.21>은 '우리 다ᄒᆞᆫ 大衆'으로 읽힌다. 이 때 '我ㅎ'의 'ㅎ'는 '우리'라는 새김의 頭音을 표기한 것 즉, 頭音添記로 본다. 그런데, 이것을 전훈독 표기로 볼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겠다.

수사 중에는 서수사가 눈에 띈다. '三ᄉᆞᆫ 手ㅣ'<15.7>의 '三ᄉᆞᆫ'을 '세잣' 또는 '세찻' 정도로 읽었으리라 추정한다. 명사류 고유어 중 주목되는 것은 '안디'로 읽히는 否定辭이다. '非矣'와 '不矣'가 여러 번 쓰였는데, 이두의 '不喩'와 그 독법이 동일하다. '안디'는 계사와 통합하므로 명사로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안ᄃᆞᆯ'로 읽히며, 동사의 부정 표현에 쓰이는 '不多' 또는 '非多'은 사정이 이와 다소 다르다. '觀ㅅ不多ㄴㅎㅣㄴㅏㅣ'<3.24>에서는 동사 어간에 바로 통합하며, '無義ㅅㄱのしㅅㄲ 非多ㅅㄴㄱ'<11.10>에서는 동명사 어미에 후행한다. '아니'로 읽힌다고 추정되는 '未ㅣ'도 '菩薩ㅣ 成佛ㅅㄲ 未ㅣㅅㅂㅊ 時十'의 예로 미루어 볼 때 명사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3. 2. 2. 동사류 고유어

구역인왕경 구결문의 고유어 동사류 중에서 어형 재구가 비교적 확실한 것은 全訓讀 표기이다. '如'는 형용사로 쓰였을 때에는 '다'로, 대격을 지배하는 타동사로 쓰였을 때에는 'ᄀᆞᆮ'으로 읽힌다. '車輪 如ㅣㅅㅎ'<2.14>는 전자의 예이고, '今し 如這'<2.5>은 후자의 예에 속한다. '如ㅣㅅ-'(다ᄒᆞ-)와 같이 읽히는 것으로 '若ㅣㅅ-'<2.14>가 있으므로

양자는 유의어로서 국어에서 한 단어로 합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전훈독 표기는 아니지만, '等ㅅ-' 역시 '다ᄋᆞ-'로 새겨 읽는다. '爲' 자도 전훈독 표기를 보여 주는 예이다. '大衆ㅋ 爲ᄉᆞᄒᆞ'<2.21>에서 보듯 '爲'가 '삼' 정도로 읽혔음을 알 수 있다. 'ᄒᆞ' 표기를 생략한 '爲ᄉᆞ-'의 용례가 몇 개 발견된다. '以' 자의 경우는 어떻게 읽혔는지 확정하기가 다소 어렵다. '以ᄀᆞᆞ'를 흔히 '쓰아' 또는 '뻐'로 새기고 있으나, '神力ㄴ 以ᄉᆞᄀᆞᆞ'<3.4>의 'ᄉᆞ'가 걸림돌 역할을 한다.

말음첨기에 의해 어형 추정이 어느 정도 가능한 동사들이 있다. '定ㄴ 從ㄷ 起ㅅㄴ下'<3.13>의 '從ㄷ'은 '좇'의 독법을 시사해 준다. '應ㄷㅅㄱ'<14.19>은 李丞宰(1995)에서 잘 밝혔듯이 '맞ᄒᆞᆫ'으로 새겨 읽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可ㄷㅅㄱ'은 '짓ᄒᆞᆫ' 또는 '짝ᄒᆞᆫ' 정도로 읽히는 보조동사이다. '現ㄹㅂㅎㄴㄱㅣ'<3.14>의 '現ㄹ-'는 15세기 국어의 '나토-'에 정확히 일치한다. '雨ㅣㅁ'<2.16>의 용례는 사동 접미사가 결합된 형태의 말음이 토 표기에 반영된 것으로 타동사로 쓰인 '雨ㄹㄱㅁ'<2.14>와 대비된다.

이상에서 열거한 동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동사들의 경우는 중세국어에 기대어 그 독음을 추정할 뿐이다. 용례 몇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 見ㅏㄱㅣㅁ<14.1>, 窮ᄀᆞᆞ<11.2> ,得ㅂㅎㄴㅁ<11.15> ,得ᄀᆞᆞㄹㅎ<15.4> ,聞白ㅁㅅㄱ<11.14> ,白ᄀᆞᆞ<3.22> ,善ㅁ<3.19> ,受ㅁㅂㄱㅣᄉᆞ<11.12> ,至ㅣㅅㅂㅎㄴㅣ<2.13> ,盡ᄀᆞᆞㅁ<11.3>

위 (20)에 대해 동사 어간만을 15세기 국어에 견주어 보이면 (21)과 같다. '得'은 '얻-'과 '실-'의 두 가지로 읽을 수 있고, '窮ᄀᆞᆞ'와 '盡ᄀᆞᆞㅁ'의 어간 역시 '다ᄋᆞ-'로 동일하게 읽는다.

(21) 見(보-), 窮(다ᄋᆞ-), 得(얻-/실-), 聞(듣-), 白(숣-), 善(읻-), 成(일-), 受(받-), 至(니를-), 盡(다ᄋᆞ-)

3. 2. 3. 수식어류[8] 고유어

1) 부사의 유형별 분류

① '-로'형 부사

'自ㅋᄆ'가 대표적이다. 석독구결 자료인 華嚴經(6.2)과 瑜伽師地論(6.2)에서는 '自ㅋ'에 대격 조사 'ㄴ'이 통합된 용례가 보인다. 이로 미루어 볼 때 '自ㅋᄆ'는 명사 '스싀'에 조사 '-로'가 통합된 것으로 추정된다. 15세기 국어에서 '自'의 새김은 '저' 이외에 '스싀, 스싀로, 스스리, 스스로'로 나타난다. 그런데 '스싀'가 '스싀로'와 마찬가지로 부사로 쓰인다. 구역인왕경에 쓰인 예문 (22)는 15세기 국어와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이두에서는 '自以'로 사용되는 점이 참고된다.

(22) 自ㅋᄆ 有ンㄱ ヒカ<14.24>
有人 無人ㄱ 本ᄆハ 自ㅋ 二リㄱ矢<15.3>

'本ᄆハ'를 '미트록'으로 읽는다면 이것은 '-로'형에 속하는 고유어 부사이다. 그러나, '본딕로'로 읽는다면 이것은, 앞서 말했듯이, 순수한 고유어는 아니라고 본다. '是リ 故ᄆ'<11.13>와 같은 용례 중 '故ᄆ'의 경우도 고유어에 속할 듯하나, '故'의 독음이 확실하지 않아 보류해 둔다.

② '-아'형 부사

'先ㅋ'<3.18>를 15세기의 국어 '몬져'에 대응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末音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몬져'는 이두의 '先亦'와 대응시켜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이두의 '先可'와 瑜伽師地論의 '先下'<4.16>, 그리고 구역인왕경의 '先ㅋ'를 이어지는 형태로 보고 음운사적인 관점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等ㅋ'도 부사로 쓰였다. '三十生し 盡ㅋロ 等ㅋ 大覺ンニガ'<11.3>에

8) 부사류라는 용어가 좀더 적합할 듯하다. 부사어를 형성하는 유형 가운데 '爾ヒンㄱ 時'와 같이 체언을 수식하는 것을 아울러 표현하기 위해 수식어류라 이름한다.

서의 용례가 이에 해당한다. 형용사로 쓰인 '等ㅅ-'와는 다르다고 본다. 화엄경에 쓰인 '等ㅎㅅ-' 역시 부사에 'ㅎ-'가 접미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③ '-오'형 부사

'復ㄹ'<2.13>와 '卽ㄹ'<3.4>, 그리고 '初ㅊㄹㅅㄱ'<2.11>의 '初ㅊㄹ'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동사 어간에 부사 파생 접미사가 통합되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復ㄹ'는 '*돌오', '卽ㄹ'는 '*곧오'로 읽을 수 있다. 그리고 '初ㅊㄹ'는 '*비릇오' 정도로 읽혔을 것인데, 화엄경에 쓰인 '初ㅊㅁ'<9.19>가 참고된다.

④ '-이'형 부사

'덛더디'로 읽을 수 있는 '常ㅣ'<15.4>, 'ᄌᆞ세'로 읽히는 '諦ㅣ'<3.19>, '未ㅣㅅㅌㅊ'<15.18>의 '未ㅣ'가 이에 속한다. 이들은 석독구결 자료에 고루 나타나고 있다.

⑤ '-ㅅ'형 부사

부사류 고유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 유형이다.

'皆ㅊ'<2.5>, '共ㅊ'<2.19>, '方ㅊ'<2.11>, '若ㅊ'<14.18> 등이 이에 속하는데, 이들은 각각 '닷, 다뭇, 비릇, ᄒᆞ다갓'으로 읽힌다. 이 중 '皆ㅊ'은 '돈붓'으로 읽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及ㅅ'<2.5>은 다른 석독구결 자료에서 '及ㅊ'으로 표기된 것을 참고하여 치음 종성을 받쳐 읽는다. '與ㅊ'<11.24>도 '밋'으로 독음된다.

⑥ 기타

'唯ㅅ'<11.6>은 '오직'으로 새긴다. '-ㄱ'형 부사도 한 부류를 이루나 구역인왕경에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

'-ㅎㅂ'이 덧붙은 유형의 부사들이 사용된다. '各ㄱ各ㄱㅎㅂ<2.4>, 以ㅂ<2.7>, 得ㅂ<11.18>/得ㅎㄹㅁ<15.4>' 등이 이에 속하는데, 'ㅎ'의 존재 규명이 과제로 남는다.

'已ㅋ'<11.20>는 중세국어의 '이믜셔'에 대응하는 어형이다.
'眞ㅎ'<15.6>은 '춤'과 일치하는 어형으로서 부사로 사용되었다.

2) '× + ㅅㄱ' 유형의 수식어

석독구결에는 '× + ㅅㄱ'의 통사 구조로 된 수식어들이 많이 등장한다. 대개의 경우 부사로 기능하고 있으나 간혹 관형어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이들은 '×ㅌ + ㅅㄱ'에서처럼 선행 구성요소가 'ㅌ'으로 끝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뉜다. 이 때의 'ㅌ'은 명사성을 지닌 부사를 파생시켜 주는 접미사라 할 만하다. 후자의 예로서는 '復ㅅㄱ <2.1>/亦ㅅㄱ <2.12>, 上ㅅㄱ <2.12>, 或ㅅㄱ <11.18>' 등이 있고, 전자의 예로서는 '何ㅌㅅㄱ'<2.23>과 지시어 '爾' 또는 '是'에 'ㅌㅅㄱ'이 덧붙은 것이 있다. 동사로 쓰인 '然ㅌㅅㄷㅏ'<3.12>도 이런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유형에 속하는 것의 예를 들어 부언하면 다음과 같다.

석독구결에서는 '爾' 또는 '是'에 '(…)ㅅㄱ'이 통합되어 문맥상 '그러한/그' 또는 '이러한/이'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들이 있다. 피수식어로 '時'가 후행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2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3) ㄱ. 爾/是 + ㅣ + ㅌ + ㅅㄱ 時
ㄴ. 爾/是 + ㅌ + ㅅㄱ 時
ㄷ. 爾/是 + ㅅㄱ 時

구역인왕경에서는 (23ㄴ) 유형의 '爾ㅌㅅㄱ 時'<3.17>와 '是ㅌㅅㄱ 時'<2.18>만이 쓰였으나, 화엄경에서는 (23ㄱ) 유형의 '爾ㅗㅌㅅㄱ 時'<1.3>와 '是ㅣㅌㅅㄱ 時'<19.12>, 그리고 (23ㄷ) 유형의 '爾ㅅㄱ 時'<9.1> 등도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앞서 'ㅌ'이 개입되지 않은 어형들을 고찰할 때 그것이 본래부터 사용되지 않았던 것인지, (23ㄷ)과 같이 생략된 표기인지를 감안해야 할 것이다.

4. 마무리

이상으로 구역인왕경 구결문의 어휘에 대하여 그 단편을 짚어 보았다. 한자의 독법을 소략히 살핀 후 한자어와 고유어로 나누어 언급하였다. 한자어는 중국의 문어계와 불교어계로 양분하여 그 면모를 훑어 보았으며, 고유어는 품사별로 더듬어 보았다. 고유어 중에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라 아예 언급조차 안한 것이 많다. 이것은 특히 부사류 고유어 중에 많다. '故'의 독음을 비롯하여, '斯ᄆᆞᆫᄇᆞᄉᆞ, 暫ᄌᆞᆷ火七, 相ᄀᆞᆯᄆᆞᄎᆞᆯᄀᆞ' 등 희소한 만큼 더욱 소중한 용례들이 아무런 조명을 받지 못한 셈이다. 발견된 지 四半世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둠에 싸여 있다는 사실에 다시금 놀라게 된다. 그러나, 다른 어느 것보다도 필자의 역량이 모자라는 점에 송구할 따름이다. 남아 있는 숱한 문제들을 同學들이 척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글을 맺는다.

참고문헌

金斗燦(1997), "舊譯仁王經 口訣 解讀 試攷", 『口訣硏究』 2, 口訣學會.

金永萬(1986), "舊譯仁王經의 釋讀表記 小考(I)", 『國語學新硏究(若泉金敏洙敎授華甲紀念)』, 塔出版社.

金永萬(1997), "석독 구결 '皆七', '悉ᄉᆞ'와 고려 향찰 '頓部叱', '盡良'의 비교 고찰", 『口訣硏究』 2, 口訣學會.

南權熙(1997), "차자 표기 자료의 서지", 『새국어생활』 7권 4호, 국립국어연구원.

南星祐·鄭在永(1998), "舊譯仁王經 釋讀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硏究』 3, 口訣學會.

南豊鉉(1986), "舊譯仁王經의 口訣에 대하여", 『國語學新硏究(若泉金敏洙敎授華甲紀念)』, 塔出版社.

南豊鉉(1996),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動名詞語尾 '-ㄱ/ㄴ'에 대한 考察", 『國語學』 28, 國語學會.

南豊鉉(1998), "『瑜伽師地論』(卷20) 釋讀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硏究』 3, 口訣學會.
南豊鉉, 沈在箕(1976), "舊譯仁王經의 口訣硏究(其一)", 『東洋學』 第6輯.
朴盛鍾(1996), "朝鮮初期 吏讀 資料와 그 國語學的 硏究", 박사학위논문, 서울대 대학원.
朴英燮(1995), 『國語漢字語彙論』, 박이정.
沈在箕(1975), "舊譯仁王經上 口訣에 대하여", 『美術資料』 18, 국립중앙박물관.
沈在箕·李丞宰(1998), "『華嚴經』 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硏究』 3, 口訣學會.
李基文(1972), 『國語史槪說』, 개정판; 민중서관.
李東林(1982), "舊譯 仁王經의 口訣解讀을 위하여", 『論文集』 第21輯, 동국대학교.
李丞宰(1992), 『高麗時代의 吏讀』, 태학사.
李丞宰(1995), "華嚴經 口訣의 狀態動詞 語幹", 『韓日語學論叢』, 國學資料院.
鄭在永(1995), "'ㅅ'형 부사와 'ㄷ'형 부사", 『國語史와 借字表記』, 태학사.
鄭在永(1998), "合部金光明經(卷三) 釋讀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硏究』 3, 口訣學會.